

한-케냐 인프라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9월 5주~10월 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출처:trading economics

	해당년/월/주/일	전년/월/주/일	참고시점
환율(USD)	129	129	2025.10월
인플레이션(%)	4.6	4.5	2025.9월
CPI(points)	147	146	2025.9월
정부부채비율(% of GDP)	65.5	72	2024.12월

○ 케냐의 신규 IMF 자금 지원 요청: 전략, 제약 요인 및 재정 안정성에 대한 시사점¹⁾

- 케냐는 기존 36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의 최종 검토가 결렬된 이후, 신규 자금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IMF에 공식적으로 접근하였음.
- IMF는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 직원 대표단을 파견하여 케냐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재정 및 거시경제 여건을 평가하며, 신규 프로그램 체결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임.
- 앞서 케냐는 이전 IMF 협약 하에서 재정적자 축소 및 세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공공 시위로 계획된 세금 인상을 철회하면서 자금 집행이 지연된 바 있음.
- 케냐는 이제 다음 IMF 프로그램이 정책 지원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펀디드(funded) 협정이 되기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채무 상환 안정성과 거시경제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1)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kenya-authorities-approach-imf-to-unlock-new-funding-5205058>

○ 케냐, 섬유 수출 KES 965억과 30만 일자리 보호를 위해 미국
신규 무역협정 추진²⁾

- 케냐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 총 KES 965억 (7억 3,700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출하였으며,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이 대체 협정 없이 만료될 경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리 키난주이(Lee Kinyanjui) 케냐 무역산업부 장관은 관세 면제 접근권과 관련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말 이전에 미국 워싱턴과의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음.
- 이러한 긴급성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이미 케냐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2020년에 처음 시작된 신규 무역협정 협상은 최근 재개되었으며, 케냐는 AGOA의 우호적인 조건을 최대한 재현하는 동시에, 나이로비의 중국 교역 확대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예산관리관(CoB), 새로운 자원배분 공식에 따라 카운티에 KES 332억
지급 승인³⁾

- 예산관리관(Controller of Budget, CoB)은 「2025년 지방정부 자원 배분법(County Allocation of Revenue Bill, 2025)」 통과 후 2025/26 회계연도 총 카운티 공평 배분액을 KES 4,150억으로 설정하고, 8월 분으로 KES 332억을 카운티에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였음.
- 이번 결정은 국회와 상원 간 조정 과정을 거쳤으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자원 배분 기준(Fourth Revenue Sharing Basis)을 기반으로 최종 배분이 확정되었음.
- 해당 공식은 인구(45%), 기본 배분(35%), 빈곤율(12%), 토지 면적(8%)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하며, 나이로비(Nairobi), 나쿠루(Nakuru),

2) <https://businesstoday.co.ke/kenya-bets-on-fresh-u-s-trade-deal-to-exports/>

3) <https://www.the-star.co.ke/news/2025-09-23-cob-approves-disbursement-of-sh332bn-to-counties>

투르카나(Turkana), 카카메가(Kakamega), 키암부(Kiambu), 킬리피(Kilifi) 등이 주요 수혜 카운티로 지정되었음.

- 이번 지급은 분권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 개발 프로젝트, 재정 자율성 강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케냐 도로세(Road Levy) 유동화: 법적 위험, 숨은 부채, 인프라 재원 투명성 문제⁴⁾

- 케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정부가 도로 유지관리세를 담보로 KES 1,750억 규모의 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세수 수익을 국회나 국민 동의 없이 사실상 유동화했다는 혐의가 제기됨.
- 정부는 도로교통부(Roads and Transport Ministry)를 통해, KES 1,750억 규모의 미지급 도로 시공업체 청구서를 인수하였으며, 특별 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 SPV)를 통해 리터당 KES 25 중 KES 7을 유동화하여 즉시 자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음.
- 은딘디 뇨로(MP Ndindi Nyoro) 등 비평가들은 해당 대출이 공식 부채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번 유동화가 은밀한 차입에 해당해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함.
- 정부 관계자들은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했으며, 남은 리터당 KES 18는 유지보수 재원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조치는 법적 정당성, 미래 재정 부담, 감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 케냐 재무부, 증가하는 부채 부담 속 차입 수단 확대⁵⁾

- 케냐 재무부(Treasury)는 증가하는 부채 압박을 관리하기 위해 차입 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규 증권 발행과 대체 차입 경로 모색을 포함함.
- 이번 조치는 기존 재원 공급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 긴축과 재정 제약 속에서도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4)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30415/government-sued-for-using-road-levy-as-collateral-in-sh175bn-loan-deal/#page_vignette

5)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treasury-expands-borrowing-options-amid-rising-debt-pain-5209926>

- 전문가들은 케냐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와 제한된 세수 성장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이나 재정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차입 전략 다각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 확대된 차입 옵션에는 예산 외(Off-Budget) 경로, 신용한도(Credit Lines), 단기·중기 차입 수단(Short/Medium-Term Tools) 등이 포함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과 비용을 수반해 채무 지속 가능성 유지에 도전이 될 수 있음.

○ 케냐 유로본드 수익률 하락, 외부 차입 비용 절감 신호⁶⁾

- 케냐 유로본드(Eurobonds) 수익률이 한 자릿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정부가 국제 채권시장에서 더 저렴한 차입 비용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분석가들은 수익률 하락이 신용 심리 개선과 위험 프리미엄 완화를 반영하며, 최근 거시경제 개혁 또는 전망 개선에 기인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수익률 하락은 케냐의 외채 상환 비용을 낮추고 채무 지속 가능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신규 발행 규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혜택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저렴한 차입 기회를 활용하되, 과도한 채무 노출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실현될 수 있음.

○ 케냐, 2025년 2분기 경제성장률 5% 기록 — 농업, 교통, 건설 회복 주도⁷⁾

- 케냐 통계청(Keny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케냐 경제는 2025년 2분기 기준 5% 성장하여 2024년 같은 기간 4.6% 대비 확대되었음.
- 성장은 주로 농업·임업·어업(4.4%), 운송 및 물류(5.4%), 금융 및 보험 서비스(6.6%)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음.
- 건설업(5.7%)과 광업 및 채석업(15.3%)은 2024년 2분기 수축 이후 강한 반등을 기록하며, 부문별 회복 신호를 나타냈음.
- 전기 및 수도 부문도 5.7% 성장하며 개선되었으나, 농업의 부가가치는

6)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markets/capital-markets/lower-kenya-eurobond-yields-signal-cheaper-borrowing-costs-5211086>

7)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10/kenyas-economy-grows-5pc-in-q2-of-2025/>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되었음.

○ 루토 대통령, IMF 협상 속 케냐 재정 안정성 강화 위한 국부펀드 및 인프라펀드 설립 계획 발표⁸⁾

-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케냐의 장기적 경제 안정성과 국가 우선 투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프라펀드(Infrastructure Fund)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번 조치는 2019년 국부펀드 법안(Sovereign Wealth Fund Bill) 추진을 재개하는 것으로, 당시 잉여 재원을 관리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촉진하고자 했으나 의회에서 거버넌스와 자금 조달 문제로 보류된 바 있음.
- 인프라펀드는 주요 공공 프로젝트 재원을 조달하는 동시에 상업 차입과 인프라 채권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 케냐 재정 관리 접근 방식의 전환을 시사함.
- 루토 대통령의 발표는 나이로비에서 진행 중인 IMF 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케냐가 재정 건전성을 입증하고 부채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는 것임을 보여줌.

□ PPP 관련 동향

○ 케냐, 편향 의혹 속 ‘하이 그랜드 폴스 댐(High Grand Falls Dam)’ 민관협력사업(PPP) 취소로 KES 3,370억 규모의 재정 위험 직면⁹⁾

- 케냐는 ‘하이 그랜드 폴스(High Grand Falls)’ 프로젝트의 취소가 확정될 경우, 영국 GBM 컨소시엄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사전 준비작업 및 개발 비용 등으로 인해 최대 KES 3,370억(약 USD 26억)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해당 댐 사업은 민관협력사업(PPP) 모델로 계획되었으며, 영국 GBM이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어 향후 30년간 자금 조달,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었음. 프로젝트 개발 계약을 제출했으나 PPP 위원회가 프로젝트 개발 보고서(PDR)에서 문제를 발견하면서 계약이 취소되었음.

8) <https://www.standardmedia.co.ke/business/business/article/2001531186/deal-or-no-deal-why-cash-strapped-government-is-awaiting-inf-bailout>

9)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3045/costly-swindle-why-breach-of-grand-falls-dam-deal-could-see-kenya-pay-out-billions#google_vignette

- 저스틴 무투리(Justin Muturi) 전 법무장관 및 칼론조 무쇼카(Kalonzo Musyoka) 등 비평가들은 이번 취소가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회사 선호에 의해 추진된 것일 수 있다며, 불공정, 부패,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논란과 법적 소송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적절히 수정해 재개하거나 재입찰할 계획을 준비 중이며, 케냐전력공사(KenGen), 에너지규제청(Energy and Petroleum Regulatory Authority, EPRA), 국가관개청(National Irrigation Authority, NIA)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제도 및 PPP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JICA, 케냐 지열 발전 확대 위해 KES 1,100억 지원 제안: 역량 강화, 금융 조달 및 청정에너지 경로¹⁰⁾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케냐 지열 용량 확대를 위해 KES 1,100억 규모의 지원을 제안했음. 이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공여국의 관심 재개를 시사함.
 -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케냐인이 지열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는 해당 산업 내 기술 및 인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이번 확대 계획은 케냐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지열 발전량을 증대하려는 국가적 목표와 일치하며, 국가 차원의 청정에너지 목표와도 연계됨.
 - JICA의 참여는 향후 지열 프로젝트들이 초기 탐사 및 인프라 구축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제 금융과 기술 협력에 부분적으로 의존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타이파 가스(Taifa Gas) LPG 터미널 사업 중단: 법적 분쟁, 환경 위험, 케냐 에너지 인프라 과제¹¹⁾
- 타이파 가스(Taifa Gas)는 환경 및 법적 문제로 인해 몸바사

10) <https://nation.africa/kenya/news/energy-conference-jica-in-sh110bn-geothermal-expansion-bid-5198322>

11)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companies/taifa-gas-appeals-suspension-of-kenyan-project-5204584#google_vignette

(Mombasa)에서 추진 중인 KES 160억 규모의 LPG 터미널 프로젝트가 하급 법원에서 중단된 후 항소 법원에 항소하였음.

- 이번 중단은 환경·토지 법원(Environmental and Land Court)이 임시 금지명령을 내려, 청문회 전까지 회사가 건설, 나무 벌목 또는 관련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데 따른 것임.
- 타이파 가스는 청원인들이 “중대한 사실의 비공개(Material Non-Disclosure)”로 임시 금지명령이 발부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단 조치의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 청원인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을 훼손하고 어업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공청회 없이 시작되었고 헌법 및 환경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KETRACO 전력 송전 계획, 입찰 투명성·감독·신뢰성 논란¹²⁾

- 케냐 송전망공사(Kenya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KETRACO)가 추진하는 수십억 케냐 실링 규모의 신규 전력 송전 프로젝트가 공개 참여 제한과 규제 감독 부실 등 투명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논란이 된 아다니(Adani) 계약 취소 이후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비평가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입찰 과정이 개방적이지 않아 경쟁 참여를 배제하고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규제 기관과 시민사회는 KETRACO의 계획된 송전선에 대한 조달 절차의 엄격한 심사와 명확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 이번 시점이 특히 민감한 것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취소된 뒤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며, 이는 전력 인프라 계약 절차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하이 그랜드 폴스 댐(High Grand Falls Dam): KES 3,480억 PPP 메가 프로젝트 - 에너지, 관개, 홍수 관리 강화¹³⁾

- 케냐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에 따르면, 타나 강(River Tana)

12) https://www.standardmedia.co.ke/business/business/article/201530846/new-ketraco-power-projects-spark-tendering-transparency-concerns#google_vignette

13)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10/high-grand-falls-dam-to-cost-up-to-sh348mn/#google_vignette

인근에 계획된 하이 그랜드 폴스 댐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은 KES 3,233억~3,480억 (약 USD 25~27억)임.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방식으로 추진되며, 2032년까지 400메가와트 (MW) 이상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여 케냐 전력 용량을 크게 확대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가리사(Garissa)와 타나 강(Tana River) 카운티의 홍수를 완화하고, 25만 헥타르 이상 농지 관개, 식량 및 물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완공 시 케냐 최대 수자원 저장 시설이자,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아스완 하이댐(Aswan High Dam) 다음으로 두 번째 규모의 댐이 될 예정임.

○ 나이바샤(Naivasha) 대규모 상·하수도 PPP, 물 공급 및 처리 혁신 기대¹⁴⁾

- 하스코닝(Haskoning), 레벨그룹(RebelGroup), 아프리카 수자원 인프라 개발(Africa Wate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WID), 워터커넥트(WaterConnect), 민간 인프라 개발 그룹(Priva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PIDG) 간에 케냐 PPP 국(PPP Directorate) 주관으로 나이바샤 대규모 상·하수도 PP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음.
- 30년 프로젝트로, 나이바샤 특별경제구역(SEZ)과 인근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현대식 상·하수도 인프라 설계, 금융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하게 됨.
- 27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기후 회복력이 있고 지속 가능하며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나이바샤 호수(Lake Naivasha)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사업은 케냐에서 수자원 안보, 산업 성장, 지역 기후 회복력을 촉진하는 공공-민간 협력의 효과적 사례를 보여줌

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

14) <https://pidg.org/naivasha-bulk-water-and-wastewater-ppp-set-to-transform-water-supply-and-treatment-in-naivasha-kenya/>

- **Mission 300: 세계은행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2030년까지 3억 아프리카인 전력 접근 지원 - 그리드·비그리드 및 정책 개혁 포함¹⁵⁾**
 -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Mission 300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2030년까지 아프리카 3억 명에게 전력 접근성을 제공할 계획임. 이 중 세계은행은 2억 5천만 명을 그리드(Grid) 및 분산형(Distributed) 솔루션으로 지원하며, AfDB는 5천만 명을 지원함.
 - 본 계획은 단순한 인프라 투자에 그치지 않고, 전력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 개혁, 공공기관 성과 개선, 민간 부문 참여 유치 환경 조성 등 포괄적 정책 개혁을 포함함.
 - Mission 300의 실행 지원을 위해, 초기 단계로 전력 분야 경력 초기 전문가(Fellows)를 17개 전력 접근성이 취약한 국가에 배치하여 기술 지원, 사업 수행 모니터링, 전문 인력 운영 등을 통해 역량 제약 해소를 돕고 있음.
 - 이미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목표, 개혁, 투자 필요성을 정의한 국가 에너지 협약(National Energy Compacts)을 제출하거나 채택했으며,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등 개발 파트너의 지원을 받고 있음. 또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비그리드 솔루션(Off-Grid Solutions), 그리드 인프라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KPC 재단, 나쿠루(Nakuru)에서 KES 400만 규모 태양광 지하수 개발사업 착수 - 안전한 식수 접근성 강화¹⁶⁾**
 - 케냐 파이프라인 회사(Kenya Pipeline Company, KPC) 재단은 롱가이(Rongai) 지역 솔라이(Solai) 구역 세트 코보르(Set Kobor) JSS 초등학교에 KES 400만 규모의 태양광 기반 지하수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으며, 385명의 학생과 지역사회를 지원함.
 - 본 사업은 특히 송전권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포함해 안전한 물, 보건, 위생,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재단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임.

15) <https://www.standardmedia.co.ke/business/financial-standard/article/2001530160/world-bank-afdb-in-pact-to-connect-300m-with-electricity>

16) <https://www.the-star.co.ke/news/2025-09-23-kenya-pipeline-foundation-commissions-sh4m-water-project-in-nakuru>

- 폴 체보르(Paul Chebor) 롱가이 국회의원(MP), 닉슨 모로고(Nixon Morogo) 지방의회 의원(MCA), 도린 코리르(Hon. Doreen Korir) 등이 착수식에 참석하여 지역사회-정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KPC 재단은 나쿠루(Nakuru), 나이로비(Nairobi), 메루(Meru), 카지아도(Kajiado) 등지에서 교실 건설, 의료 캠프 운영, 급수탱크 기증, 지하수 개발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물 접근성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 케냐 남부 리프트(South Rift) LVSR 도로 노후화: 책임 문제, 유지보수 실패, 루토 대통령에 대한 기존 인프라 개선 압력¹⁷⁾

-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 재임 시 건설된 저교통량 포장도로(Low Volume Seal Roads, LVSR) 중 상당수가 특히 남부 리프트 밸리(South Rift Valley)에서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침식되었으며, 일부 구간은 유지보수 미흡, 과적 상업차량 통행, 홍수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LVSR 도로는 경량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과다 사용과 관리 소홀로 인해 손상됨)
- 일부 도로는 시공업체에서 인도되기 전부터 이미 훼손되었으며, 다수는 설계 수명(대부분 약 15년)보다 훨씬 이전에 기능을 상실했음.
- 현 도로부 장관(Roads CS)과 루토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도로 노후화를 인정하고, 도로 복구, 감독 강화, 향후 건설 및 유지관리 기준 상향 계획을 약속하였음.
- 남부 리프트 지역, 특히 포장 도로가 없는 농촌 및 저개발 지역에서 도로망 훼손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루토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 시아야(Siaya) KES 5,000억 원자력 계획: 기대 효과, 위험, 이해관계자 신뢰 평가¹⁸⁾

- 시아야 주지사 제임스 오렌고(James Orengo)는 시아야 카운티에 계획된 KES 5,000억 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옹호하며, 해당 사업이 지역 개발,

17) <https://nation.africa/kenya/counties/south-rifts-neglected-low-seal-roads-crumble-5197670>

18) <https://nation.africa/kenya/counties/siaya/siaya-bets-big-on-sh500bn-nuclear-plant-as-orengo-defends-project-5210032>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에 변혁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비평가들과 일부 시민들은 방사선 위험, 부지 안전성, 이해관계자 참여 적정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인프라와 연관성이 없었던 카운티라는 점에서 불안이 높음.
- 오렌고 주지사과 지지자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케냐의 광범위한 에너지 전략과 부합하며, 원자력 및 에너지청(Nuclear Power and Energy Agency, NuPEA)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고, 해당 지역을 첨단 에너지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재 이 계획은 초기 기획 및 이해관계자 협의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설계, 시공사, 재원 조달 모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 케냐, 2027년까지 10만 km 광케이블 구축 목표 – 디지털 전환 가속화¹⁹⁾

- 케냐 정부는 2027년까지 10만 km 규모의 광케이블(fibre optic) 인프라를 설치하여 보편적 인터넷 접근을 달성할 계획이며, 2023년 이후 이미 7,000 km가 설치되었음.
- 이번 광케이블 구축은 학교, 의료기관, 기업, 가정, 공공장소를 연결하며, 25,000개의 인터넷 핫스팟과 1,450개의 마을 디지털 허브를 설치하여 교육 및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한다.
- 추가 사업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국가 주소 체계, 지리정보 인프라, 지역 스마트 ICT 허브, 전자폐기물(E-Waste) 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됨.
- 정보통신청(ICT Authority)은 2천만 명 이상의 시민과 전문인력 대상 역량 강화에 투자하며, 사이버보안과 디지털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원스톱(One-Stop) 정부 서비스 포털을 우선시 하고 있음.

○ 미국, 에티오피아 100억 달러 규모 공항 프로젝트 지원²⁰⁾

- 미국은 에티오피아가 계획 중인 100억 달러 규모의 공항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항공 인프라 개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9) <https://www.the-star.co.ke/news/realtime/2025-09-29-state-targets-100000km-of-fibre-optic-by-2027>

20) <https://www.theeastafrikan.co.ke/tea/business-tech/us-backs-new-10bn-airport-in-ethiopia-5211964>

- 본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를 주요 아프리카 항공 허브로 자리매김시키고, 글로벌 항공 운송 경쟁력 향상과 인접국 허브와의 경쟁 잠재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의 참여는 아프리카 뿔(Horn of Africa) 지역에서 전략적 경제 외교를 확대하고,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함.
 - 이번 대규모 투자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항공 부문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함.
- 케냐, KES 60억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구축 – 교통 혁신 기대²¹⁾
- 케냐는 2030년까지 1만 개의 공용 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KES 60억 규모의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우선 6개 주요 카운티에 45개의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음.
 - 이번 사업은 연료 수입 감소, 배출가스 저감, 녹색 일자리 창출, 공공 및 민간 교통 수단의 전동화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재원 조달은 정부 지출, 케냐 전력(Kenya Power) 투자, 민간 참여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요금 불확실성, 전력망 용량 제한, 높은 차량 비용, 상호운용성 부족 등 과제가 존재함.
 - 업계 관계자들은 명확한 요금 체계, EV 조립 인센티브, 승인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입 속도를 높이고 정책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국 USD 14억 TAZARA 철도 개보수: 광물 수출 회랑 및 지역 인프라 전략적 업그레이드²²⁾
- 중국은 중국토목건설공사(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 CCECC)를 통해 탄자니아-잠비아 철도청(Tanzania-Zambia Railway Authority, TAZARA) 노선을 개보수하기 위해 14억 달러를 투자하며, 30년간 철도 복구, 운영 및 관리 권한을 부여받는 양허권을 체결했음.

21)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industry/kenya-ev-charging-stations-project-to-cost-sh6bn-5208046>

22)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china-1-4bn-tazara-upgrade-signals-race-for-africa-minerals-5214410/#google_vignette

- 투자 금액은 약 USD 11억이 선로 및 인프라 복구에, 약 USD 2억 3,800만이 새로운 차량 확보에 사용되며, 34대의 기관차, 16대의 객차, 760~762대의 화물차량을 포함함.
- TAZARA의 현재 운송량은 설계 화물톤수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번 개보수는 특히 잠비아와 콩고민주공화국(DR Congo)에서 다르 에스살람(Dar es Salaam) 항구로 수출되는 구리, 코발트 등 광물 운송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사업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전략의 일환이기도 함. 중국이 아프리카 인프라 입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EU가 지원하는 로비토(Lobito) 회랑 등 다른 회랑 사업과 경쟁하며, TAZARA를 지역 무역, 광물 수출 경쟁력, 통합의 핵심축으로 만들고 있음.

○ 케냐, 아다니(Adani) 철수 이후 SGR·JKIA 사업 지속 위해 KES 5,410억 인프라 채권 발행 검토²³⁾

- 아다니 그룹의 케냐 인프라 사업 철수 이후, 정부는 표준궤도철도 (Standard Gauge Railway, SGR) 확장과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 (Jomo Kenyatta International Airport, JKIA) 업그레이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KES 5,410억 규모 인프라 채권 발행을 검토 중임.
- 해당 채권 발행은 아다니 철수로 발생한 자금 공백을 메우고, 예정된 인프라 투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
- 전문가들은 채권 의존도가 높을 경우, 수익 성장이나 체계적 재정 집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재정 완충에 부담을 주고 이자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 이번 전략은 외국 민간부문 참여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요 프로젝트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려는 정부의 방향 전환을 보여줌.

④ 정치 동향

○ 루토 대통령 프로젝트 압박 속 케냐 국영기업 CEO 잇따른 퇴진²⁴⁾

23)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kenya-eyes-sh541bn-bonds-for-sgr-jkia-after-adani-s-exit-5220910>

24)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companies/state-firm-ceo-exits-surge-on-ruto-projects-pressure-5202570>

- 케냐 국영기업에서 CEO들의 연이은 사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진들이 루토 대통령의 핵심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야하는 강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
 - 이번 사퇴는 성과 압박과 정치적 개입과 연관되어 있으며, 많은 CEO가 비현실적인 일정 준수나 기업 거버넌스를 훼손하는 지시를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됨.
 - 영향을 받은 공기업에는 주요 인프라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며, 프로젝트 지연은 국가 개발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추세는 공기업의 제도적 안정성과 정치적 우선순위와 전문 경영 간 균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루토 대통령, UN 기후 대화에서 아프리카를 글로벌 친환경 산업 허브로 강조²⁵⁾
-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아프리카가 재생에너지, 전력망, 지속 가능 산업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기회를 활용하여 글로벌 녹색 산업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 국내 자본 동원 및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을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 녹색산업화 이니셔티브(Africa Green Industrialisation Initiative, AGII)와 아프리카 재생에너지 가속 파트너십(Accelerated Partnership for Renewables in Africa, APRA) 등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음.
 - 루토 대통령은 8개 아프리카 금융기관이 협력체계(Cooperation Framework)에 서명했으며, 이를 통해 USD 1,000억(약 KES 1조 2천억) 규모의 녹색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아프리카의 기후 대응 의지를 강화했음.
 - 그는 아프리카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불공정한 금융 부담을 경계하며, 선진국이 공평한 기후 금융 및 글로벌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기후변화가 여전히 전 세계적 존재적 위협임을 강조했다.
- 라이라 오딩가(Raila Odinga), ODM-FUDA 연합 옹호 및 케냐 아다니(Adani)

25) <https://www.the-star.co.ke/news/2025-09-23-ruto-africa-poised-to-become-global-hub-of-green-industry>

공항 사업 거부 비판²⁶⁾

- 라이라 오딩가(Raila Odinga)는 ODM-UDA 연합이 안정성을 촉진하고 2025/26 회계연도 국가 예산 통과를 가능하게 했으며, 국가 결속 및 관용 위원회(National Cohesion and Tolerance Commission) 보고서와 같은 개혁 추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 그는 과도한 차입을 경계하며, 케냐가 보유 자산 활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부의 현재 부채 접근 방식을 비판했음.
- 오딩가는 나이로비 국제공항(JKIA) 현대화를 위한 KES 6,000억 규모 아다니 그룹(Adani Group) 계약이 무산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로 인해 케냐가 지역 항공 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정치적 편파성과 “자기 이익”이 케냐의 장기 경제 및 인프라 발전 전망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음.

○ 킨디키 부통령, 카운티 개발계획을 국가 우선순위와 연계해 통합 성장 촉구²⁷⁾

- 킨디키 부통령(Kithure Kindiki)은 카운티 정부에 경제 성장의 통합적 접근을 촉진하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프로젝트를 국가 우선 순위와 정렬할 것을 촉구했음.
- 그는 거시경제 안정, 농업 가치사슬 개혁, 인프라 개발, 일자리 창출, 보건 및 교육 등 통합적 중점 분야를 강조하였음.
- 킨디키 부통령은 미결 청구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의 야심찬 전국민 건강보험 프로그램 ‘타이파 케어 (Taifa Care)’를 소개했음.
- 그는 분권화(devolution)를 케냐 헌법적 약속의 핵심으로 평가하며, 권한 분산, 정당성 강화, 47개 성장 거점 창출에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상원, 부시아-말라바(Busia-Malaba) 국경 인프라 검토 지시 - 무역 회랑 혼잡 완화 목적²⁸⁾

26) <https://businessstoday.co.ke/raila-odinga-regrets-collapsed-adani-deal/>

27) <https://www.the-star.co.ke/news/2025-09-29-kindiki-to-governors-align-projects-with-national-priorities>

- 케냐 상원의원들은 국세청(National Treasury), 무역부(Ministry of Trade), 케냐 국세청(KRA), 케냐 도로청(KeNHA) 등 관련 기관에 부시아(Busia)와 말라바(Malaba) 국경 검문소(Border Posts) 인프라 및 운영 병목 문제 해결을 위한 90일 행동 계획 수립을 요청했음.
- 해당 결의안은 진입도로 확장, 기능적 화물 스캐너 추가, 신선식품 및 환적 화물을 위한 전용 통관 차선, 신속한 세관 절차 등을 요구하며 혼잡 완화를 목표로 함.
- 상원 의원들은 좁은 도로, 불충분한 스캐너, 인력 부족, 기관별 중복 점검, 지연된 인프라 프로젝트(예: 트레일러 주차장) 등 결합이 무역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고 비판하였음.
- 국경검문소는 케냐와 우간다 및 동아프리카 지역 간 무역의 핵심 관문으로 간주되며, 효율성은 세수 확보, 기업 활동, 지역 통합에 필수적임.

○ 루토 대통령, 아프리카 내 무역(Intra-African Trade)을 대륙 번영의 길로 강조²⁸⁾

- 루토 대통령은 아프리카가 원자재 수출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상품을 내부적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륙이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시장에 의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그는 COMESA 회원국에 전자 원산지 증명서(Electronic Certificates of Origin), 단일 창구 시스템(Single Window Systems), 국경 간 결제 플랫폼 도입을 통해 무역 프로세스를 완전히 디지털화하여 무역 장벽을 줄일 것을 요청했음.
- 루토 대통령은 현대적 교통망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아프리카 내에서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연결된 무역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였음.
- 아프리카 내 무역 촉진 노력은 AfCFTA(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 시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내 무역 비중이 1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것임. 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50~70%에 비해 낮음.

28)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31424/senators-call-for-busia-malaba-border-infrastructure-review#google_vignette

29) <https://businessday.co.ke/ruto-champions-intra-africa-trade/>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High Grand Falls Multipurpose Dam³⁰⁾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정부 – 국가관개청(National Irrigation Authority, NIA),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케냐전력공사(KenGen) 및 해당 구성 요소(에너지 대 관개)에 따라 관련 국가기관을 통해 시행. 최근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KenGen 및 에너지규제청(Energy and Petroleum Regulatory Authority, EPRA)과의 협업이 확인됨.
- (도 급 사) 과거 보고된 시공사/컨소시엄 – GBM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영국 소재 기업)이 이전 개발 계약을 수주/협상한 바 있음; 해당 PPP 개발 계약은 이후 2025년 중반에 종료되었으며, 정부는 새로운 체제 하에서 재개 의사를 표명함. 2025년 말 기준으로 시공사 지위는 유동적인 상태임.
- (사 업 비) 보도상 KES 3,370억(약 26억~27억 달러)에서 KES 4,250억(약 30억 달러 이상). 2025년 정부 최신 수치 기준 재개된 프로젝트 평가액 약 KES 3370억 원.
- (편 당) 초기 제안은 PPP(민간 자금 조달, DBFOM/BOOT 요소 포함) – 컨소시엄 모델로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 후 이관. 최근 정부 발표에서는 국가 지원과 개발 파트너 혼합 언급; 재개 사업의 구체적 금융주체는 결정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재정적 및 잠재적 부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보고됨.
- (사업내용)
 - 타나 강(Tana River) 소재(키부카/그랜드 폴스 지역, 키투이/타라카-니티 경계 인근). 제안된 저수지 규모와 저장량은 출처마다 상이하게 언급됨(예: 약 56억 m³). 관개 가능 면적은 수십만 헥타르 수준이며, 수력발전 용량은 초기 단계 약 500 MW에서 확장 계획 시 약 693~1,000 MW로 보고됨.
 - 프로젝트 목표: 대규모 수력발전 생산, 광범위한 관개 제공(국가 식량 안보 목표 달성), 홍수 완화, 국가 에너지 믹스 및 수자원 회복력 기여.
 -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 대규모 저수지 조성으로 인해 수천 가구(일부 초기 자료에서는 약 4,500가구로 추정)가 이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이주,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수행, 완화 및 보상 조치, 관련 예산 수립이 필요함.
- (추진현황)
 - 2009~2018년: 사업이 개념화되었으며, 2010년대 동안 타당성 조사 및 입찰 절차가 진행됨. GBM 컨소시엄이 이전 입찰에서 우선개발자로 선정됨.

30) <https://tarda.go.ke/high-grand-falls-multipurpose-reservoir/>

- 2023년: GBM과 개발 계약 체결(2023년 9월 보도) 및 준비 지반 공사/캠프 설치 시작(언론 보도 기준).
- 2025년 7월: 정부(PPP위원회 및 국가 재무부)는 PPP법(PPP Act)에 따른 타당성 제출서 미비를 이유로 KES 3,370억 규모의 계약 종료; 이로 인해 사업 일시 중단 및 법적·재정적 노출 문제 발생.
- 2025년 9월: 정부는 '하이 그랜드 폴스(High Grand Falls) 프로젝트'의 재개를 공식 발표하고,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KenGen, 케냐전력공사(Kenya Power), 에너지·석유규제청(EPRA) 등이 참여하는 신규 계획 수립. 정부는 자원/시행 모델을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2025년 9월까지 언론 보도에서는 프로그램 재개 의지 강조.

○ (주요상황)

- PPP위원회는 이전에 제출된 타당성 검토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으며, 언론 보도에서는 계약 해지 또는 분쟁 발생 시 납세자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정부는 본 사업을 국가 주요 의제로 재편입하기 위한 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에너지부, KenGen, EPRA 등 다기관 협력체계를 통해 새로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중임. 재추진 사업은 최근 에너지 포럼 등에서 공식적으로 홍보됨.
- 공공기관 및 관련 문서(예: 국가관개청[NIA], Tarda, 관개청 홈페이지 등)는 본 사업을 대규모 다목적사업(대용량 저수, 관개 및 고용량 수력발전 가능)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로 계속 기술하고 있음. 발전용량은 출처 및 단계에 따라 상이(495~1000+ MW).
- 대규모 이주, 환경적 영향, 재정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대규모 이주민 발생, PPP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부채, 장기 공사 기간 등). 2025년 9월 언론 보도에서는 사업비 불확실성과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비용 증가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됨.

② Rironi-Lodwar-Nadapal Road³¹⁾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국가 간선도로 구간은 케냐 국도청(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이 담당, 로드와르(Lodwar) 측의 지역 연결도로(feeder links) 및 도심 접근로는 투르카나 카운티(Turkana County)와 케냐 도시도로청(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이 담당함.
- **(도 급 사)** 전체 구간에 걸쳐 단일 시공사는 없음 – 발주는 구간별로 나누어 진행. Rironi-Nakuru 구간 2차로 확장에는 PPP 컨세션 제안자/국제 컨소시엄 참여. Lodwar-Nadapal 구간의 초기 공사는 정부 입찰과 국제 자원(프로젝트 자원 내역에 세계은행(World Bank) 언급) 지원. 구체적인 시공사는 패키지 및 입찰별 상이.
- **(사 업 비)** Rironi-Mau Summit 2차로: 수십억 달러 규모, KES 수백억 원.
Lodwar-Nadapal: 과거 세계은행 신용한도 USD 4억 4,060만 달러.
Rironi → Nadapal 연속 업그레이드 통합 비용 미공개.
- **(편 당)** 혼합형 금융 구조임. Rironi 2차로 확장 구간은 PPP/컨세션 금융과 연금기금 또는 민간 투자자 참여 가능성 있음, Lodwar 구간 및 지역 연결도로는 다자간 금융(과거 세계은행 신용한도)과 국가/카운티 예산 배정으로 조달됨.
- **(사업내용)**
 - 이 구간은 나이로비 진입점인 Rironi(2차로 확장/고속도로 계획)에서 Nakuru/Mau Summit를 거쳐 북서쪽으로 Eldoret/Kitale, 이어 Lodwar 및 Nadapal 국경 검문소까지 연결됨. 업그레이드는 다음을 포함함:
차선 2차로 확장(나이로비-나쿠루 근접 구간), 장거리 간선도로 포장 및 구조물 업그레이드, 교량/수로 및 배수 시설 설치(계절 홍수 구역 필수), Lodwar 주변 도심 접근로/보조도로 개선.
 - Rironi 구간 세부사항(일반 범위): 4차선 2차로 확장, 서비스 도로, 교차로 개선, 공공시설 이전, 톨링/PPP 컨세션 패키징.
 - Lodwar-Nadapal 세부사항(과거 범위): 도로 확장/보수, 구조물 공사(교량/수로), 건조 지역 내 내구성 강화를 위한 포장 설계 개선, 국경 간 물류 개선– 과거 Lodwar-Nadapal 업그레이드 관련 세계은행(World Bank) 신용한도 USD 4억 4,060만 달러로 KeNHA에 문서화됨.
- **(추진현황)**
 - Rironi-Nakuru/Rironi-Mau Summit (2024-2025): 프로젝트는 계획/ESIA/PPP 패키징 단계에서 2025년 활성 컨세션 개발 단계로 전환됨. 정부는 2025년 착공 의사를 공식 발표하였으나(연중 중반 착공 가능성 보도), 조달 및 최종 계약 체결 과정은

31) https://www.afdb.org/sites/default/files/lesseru_kitale-morpus_lokichar_labour_management_procedures_imp.pdf

2025년 중반까지 진행됨. KeNHA는 2차로 확장, 유료도로(tolling), 컨세션 구조를 설명하는 사업 공개자료를 배포함.

- Lodwar-Nadapal: 세계은행(World Bank)이 2015/2016년 보고 기준 업그레이드 지원 신용한도 승인/약정함. 이후 카운티 및 국가 차원의 공사는 Lodwar 시내 진입 연결도로(local link roads)에 집중됨(예: 2025년 Nakwamekwi~Lodwar 3 km 구간 준공·인도). 투르카나(Turkana) 지역 사업 추진은 점진적이며, 국가 및 카운티 협력 하에 개별 패키지별로 실행됨.

○ (주요상황)

- Rironi 2차로 확장(2025): 정부는 Rironi-Mau Summit/Rironi-Nakuru 업그레이드를 국가 핵심 PPP 구간으로 공개 홍보; KeNHA는 프로젝트 자료를 발행하고 재무부는 재조달을 위한 과거 정산 처리. 2025년 전반의 공개 성명에서 컨세션 제안자가 개발 단계에 있음 언급.
- 조달 및 시공사 관심: 2025년 Rironi 구간 PPP를 위해 국제·중국 시공사/컨소시엄 및 다양한 컨세션 제안자(연금펀드 파트너십 포함) 참여 가능성 보고.
- Lodwar-Nadapal 업그레이드: 과거 세계은행 신용한도(USD 4억 4,060만 달러) 언급됨. 별도로, Lodwar 주변 지역 단기 도시 연결도로(local urban links) 사업은 2024~2025년 동안 적극적으로 입찰 및 준공·인도되어 도심 접근성을 개선함.
- 구간별 추진 및 장기 일정: 해당 구간이 여러 행정구역을 통과하고 서로 다른 추진 모델 필요(PPP는 나이로비 인근, 원격 북부는 국제기금/국가 패키지 활용). 따라서 연속 단일 계약 건설은 어려우며, 단계별 추진 및 혼합 재원으로 시행.

③ Mwache Junction-Tsunza-Mteza Road Project³²⁾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국도청(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 (도 급 사) 중국토목건설공사(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 CCECC)
- (사 업 비) 약 KES 220억(USD 1억 8,000만)
- (편 당) 케냐 정부 주도, 외부 파트너의 보조 금융(양허성 대출 포함) 병행

▪ (사업내용)

- 본 사업은 Dongo Kundu 우회도로(Dongo Kundu Bypass Highway)의 일부로, Mombasa~Nairobi 고속도로(A109) Mwache 교차로에서 Likoni~Lunga Lunga 고속도로(A14) Mteza까지 연결됨.
- 주요 구성 요소:
 - Mwache Creek 구간에 위치한 주요 해상 교량인 Mwache Bridge 건설
 - Tsunza 반도를 통과하는 도로 공사, 해안 지역 커뮤니티 연결
 - Mteza Creek를 가로지르는 동아프리카 최대 규모 교량 중 하나인 Mteza Bridge 건설
- 사업 목적: 남부 우회도로를 통해 몸바사 시 교통 혼잡 완화, 몸바사 항구를 통한 무역 촉진, 탄자니아와의 지역 연결성 향상.

▪ (추진현황)

- 2018년: Dongo Kundu 우회도로 2단계 착공, Mwache~Tsunza~Mteza 구간 포함.
- 2021년: Mwache 및 Mteza 교량 주요 공사 착수.
- 2023년: 진행률 60% 이상 보고, 교량 기초공사 및 일부 도로 포장 구간 진행 중.
- 현재: 도로 포장, 교차로, 교량 구조물 공사 지속

○ (주요상황)

- 완공 시 Likoni 페리를 사용하지 않고 남부 해안(South Coast)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체 경로 제공, 이동 시간 대폭 단축.
- 우회도로는 몸바사 교통 혼잡 완화 및 Dongo Kundu 특별경제구역(SEZ) 접근성 향상 기대.
- 북부 회랑 및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내 지역 무역 지원, 화물 이동 원활화
- 토지 확보 문제 및 자금 집행 지연 등으로 완공이 일부 지연됐으나, 정부 보고서에서는 안정적 진행 중임을 확인.

32) <https://kenha.co.ke/mombasa-port-area-development-project-package-2-construction-of-mwache-junction-tsunza-mteza-section/>

④ Narok (Anrok) International Airport Upgrade¹⁸³³⁾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공항청(Kenya Airports Authority, KAA)과 나록 카운티 정부(Narok County Government) 공동 추진.
- **(도 급 사)** 공개 자료상 미확정(최신 보고 기준 입찰/터미널 패키지 진행 중).
- **(사 업 비)** 초기 예산 보도는 KES 7억(국가·카운티 시드펀드 기준)에서 KES 14억까지로 추정되며, 1단계 기준. 전체 사업 최종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편 당)** 국가 정부와 나록 카운티 공동 조달. 공개 발언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을 위해 국가 정부와 카운티 각각 KES 7억씩 출연 약속. 추가 금융 및 민간 참여 여부는 아직 미확정.
- **(사업내용)**
 - Narok North 지역 내 Ewaso Nyiro 인근에 새로운 Narok 국제공항(Narok International Airport) 건설포함., Maasai Mara 관광 회로 지원 및 JKIA(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 감소 목적.
 - 핵심 범위(1단계 기준): 부지 정리 및 기초 공사, 활주로 포장, 울타리 설치, 전력 공급, 향후 터미널 및 부대시설 준비 작업.
 - 전략적 목표: Narok 직항 국제·지역 항공편 운항 지원, Maasai Mara까지 이동 시간 단축, 지역 고용 촉진, 관광 기반 지역 경제 성장 지원.
- **(추진현황)**
 - 2025년 5월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이 Narok 국제공항 착공식에 참석하고 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됨.
 - 2025년 중반: Narok 상원의원 및 카운티 관계자들은 시공사 장비 동원 및 기초 공사 착수(현장 장비 배치, 울타리 설치, 준비 작업) 상황 보고함.
 - 2025~2026년(목표 기간): 다수 현지 보도에 따르면 1단계 사업 완료 목표는 2026년 3월~7월로 설정, 터미널 패키지 입찰 진행과 지속적인 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상황)

- 2025년 5월 대통령 주관 착공식은 Narok을 관광 관문으로 육성하려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상징하며 사업 추진을 가속화함.
- 국가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초기 단계 착수를 위해 각각 KES 7억의 시드펀드(seed funding)를 공개 약속했으며, 전체 사업 예산과 민간 참여 역할은 아직 정의되지 않음.
- 현지 정치 지도자 및 언론은 2025년 중반 시공사/기술자 배치 및 초기 현장 작업 보고, 계획 단계에서 초기 시행 단계로 전환.

33) <https://www.kaa.go.ke/president-william-ruto-presides-over-groundbreaking-ceremony-for-narok-airport-ushering-in-a-new-era-for-regional-connectivity-and-tourism/>

- 다수 매체는 1단계 2026년 초 완료를 낙관적으로 제시, 그러나 KAA 공식 프로젝트 일정이나 터미널 및 장기 운영 입찰 결과는 미공개, 일정 지연 위험 존재.

⑤ OrPower 22 Geothermal Power Plant (Menengai, Nakuru)³⁴⁾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지열개발공사(Geothermal Development Company, GDC) – 증기 공급자이자 계약 주체.
- **(도 급 사)** OrPower 22 (현재 Kaishan Group에 인수되거나 제휴 중).
- **(사 업 비)** KES 117억(약 USD 9,000만) – PPP 공개 자료 기준.
- **(편 당)** PPP 방식의 자본 및 부채 혼합. OrPower 22가 약 USD 9,000만 투자, Kaishan Group이 OrPower 22를 인수하여 자금 조달과 사업 수행 추진.
- **(사업내용)**
 - 본 발전소는 나쿠루 카운티(Nakuru County) 리프트밸리(Rift Valley)의 Menengai 지열단지(Menengai geothermal field)에 위치하며, GDC가 증기 인프라를 개발함.
 - Menengai Phase-1 계획 내 35 MW 규모 IPP 발전소 3기 중 하나로, 전체 완공 시 총 105 MW 공급 예정(기타 발전소: Sosian, Globeleg).
 - 증기는 GDC에서 구매하며, GDC는 증기단지 관리 및 파이프라인 구축을 담당함.
 - 발전 전력은 현장에서부터 연결·확장된 송전선을 통해 국가 전력망에 공급되며, 발전소는 모듈식 구조로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됨.
- **(추진현황)**
 - 2024년 10월: 착공식 개최,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 주관.
 - 2024년 말~2025년 초: 부지 정리, 토목 공사, 장비 동원 등 공사 착수.
 - 지분 및 소유권 전환: OrPower 22는 중국 Kaishan Group에 인수 중이며, 현재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현재 건설 단계: 공사 진행 중이며, 발전소는 2026년 중반에 시운전(commissioning)될 예정.

○ (주요상황)

- 본 발전소는 케냐 지열 발전 용량에 35 MW를 추가하여 Menengai Phase-1 총 105 MW 목표 완성 예정.
- Kaishan의 OrPower 22 인수를 통해 프로젝트는 중국 자본 및 시공 역량 확보.
- 본 사업은 케냐의 2030년까지 100% 친환경 전력망 달성 및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 목표의 일환으로 언급됨.
- 전력 가격 및 PPA 조건: 초기 사업 문서에서 케냐 IPP 지열 기준 약 7 US¢/kWh로 언급됨.
- 발전소는 모듈형 설계로, 동일 증기 지대 내 향후 확장 및 추가 개발 가능.

34) https://pppkenya.go.ke/ova_por/35mw-orpower-22-geothermal-power-plant-project/

⑥ Lot 2: Miwani-Chemilil Road (Mamboleo-Kipsitet Corridor)³⁵⁾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국도청(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 (도 급 사) Lot 2 구간: Sinohydro와 Grageb Agencies 합작(JV).
- (사 업 비) 약 KES 49.6억
- (편 당) 국가 재무부(National Treasury)/국가 예산(KeNHA) 배정 - 자금 부족으로 초기 공사가 지연된 바 있음.
- (사업내용)
 - Lot 2 구간은 키수무(Kisumu)/난자(Nyanza) 사탕수수 재배 지역 내 Miwani~Chemilil 약 43.4 km를 포함함.
 - 범위: 아스팔트 포장(Class II) 업그레이드, 도로 확장, 배수 공사, 수로, 갓길 및 접근로 개선.
 - 본 구간은 Mamboleo~Miwani~Chemilil~Muhoroni~Kipsitet 122 km 도로 구간의 일부로, 전체 사업은 세 개 Lot으로 구분됨.
- (추진현황)
 - 2025년 초: 자금 부족 문제 해결 후, 구간별 공사 재개.
 - KeNHA에 따르면, 전체 122 km 도로(Lot 2 포함) 사업은 일시 중단되었으나 정부 자금 집행 후 재개됨.
 - Miwani~Chemilil 구간을 포함하여 토목 공사, 포장, 배수 시설 등 현장 작업 진행 중.

○ (주요상황)

- 정부는 자금 분쟁 해결 및 시공사 대금 지급을 통해 중단된 Lot 2 및 전체 구간 공사 재개 촉진.
- Lot 2는 Sinohydro - Grageb JV에 계약이 수주되었으며, Miwani-Chemilil 구간 계약금액은 KES 49.6억.
- 해당 도로 구간은 사탕수수 재배 지역 개방, 사탕수수 운송 및 설탕 공급 효율화, 지역 내 이동 시간 단축 등 전략적 역할을 수행함.
- 공사 재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공사 기간 동안 대체 경로 부족과 서비스 단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35) <https://constructionline.com/news/ke-hires-construction-on-the-122-kilometer-nairobi-junction-miwani-chemilil-muhoroni-kipsitet-highway/>